

#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중 2026년도 61.8%까지 확대

### 정부, 계약형 필수사제도 시범 도입 지역근무 전문의에 월 400만원 상당 지역·필수의로 인력 양성 거점 육성

정부가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정원에서 지역인재 전형 비중을 2026년도 61.8%까지 확대한다.

계약형 필수사제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해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10일 의대증원과 맞물려 대대교육여건 개선에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에 3조원 등을 투자하는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 병원 등 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로 인력 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

우선 지역 의료 현장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역·필수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실습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시행해 지방 국립대병원에 교육과 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한다. 학생·전공의들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임상교육훈련 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신설한다. 국립대 의대 전공교원을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0명 증원한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2025년 의과대학 강의를 리모델링하고 의생명교육 연구동 1,2호관 등 신규

시설 확보를 지원한다.

지역 출신 학생이 의대를 입학한 후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는 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우선 정부는 지역인재전형을 2024학년도 50%에서 2025학년도에는 59.7%, 2026학년도에는 61.8%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늘어나고 지역인재전형 비중마저 크게 높아지면서 지방권 학생들의 의대 입학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의 배치비율을 현 45%에서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지역에 장기 근무하는 의사를 위해 수당 등을 지급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사제'를 도입할

다. 내년 7월부터 4개 지역,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역에서 장기 근무하기로 한 필수의로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수당을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를 통해 지역·필수의로 인력을 양성할 것인데,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으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대학 재정사업의 행정·재정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전환,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따라 전남대, 조선

대를 비롯한 전국 의대의 수시 모집에 지원자들이 몰려 대대합종을 실감케 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국 31개 의과대학이 지난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수시 원서접수는 9~13일 사이에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전남대 의대의 학생부교과(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10일 오후 5시 현재 4명 모집에 10명이 지원해 2.5대1을 기록했다.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은 102명 모집에 189명이 지원해 1.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의 경우 68명을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전형에 171명이 지원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학생부교과(지역균형)에서는 4명 모집에 9명이 지원해 2.25대 1을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통령실 정호성 대통령 비서관(맨 오른쪽)이 10일 오후 광주기독병원 응급실을 찾아 이숙용 병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의료진에게 현장의 상황을 듣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 "응급실 상황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

####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광주기독병원·센트럴병원 방문 현장 점검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10일 광주기독병원을 찾아 2차병원 응급실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응급실 의료진 부족으로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속출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정호성 대통령 비서관과 행정관,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과장 등이 광주시 남구 광주기독병원과 센트럴병원 등지를 방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기독병원에서 한 시간여 동안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응급실 진료 현황 등의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용 광주기독병원장을 비롯한 응급센터장, 간호과장, 행정과장 등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들이 동행해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3차 삼급병원의 응급실 진료가 중증 치료로 제한됨에 따라 환자들이 2차병원으로 몰리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거론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응급실이 포화상태여서 중증환자가 2차병원으로 오게 돼 치료에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2차 병원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 달라고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잘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비서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비상 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전국 응급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1000만원 없어 초·중·고 입학준비금 낮추자는 구청장들

### 남구·광산구 "25만원으로 인하" 동구·서구·북구, 분담률 조정 제안 시교육청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광주 학부모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초·중·고 등학생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일선 5개 구청의 비협조로 중단 위기라는 지적(광주일보 9월 10일자 1면)과 관련, 결국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입학준비금을 낮추는 안 등을 논의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해당 사업을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에 협력사업으로 제안했던 구청들이 갑자기 재정을 내세우며, 적게는 1000만원대에 불과한 추가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차라리 입학준비금을 낮추자는 것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5개 자치구 등은 10일 시청

에서 '2024년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교육협력지원사업' 중 하나인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중·고등 신입생 입학준비금 인상액(1인 5만원)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분담 이행을 요청했으나, 자치구들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2022년 4만 여명에 이르는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분담률 시 25%, 구 20%, 교육청 55%)을 전국 최초로 지원했으며, 2023년부터는 중·고등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 상한가를 반영해 5만원을 인상한 3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는 재정을 이유로 인상된 5만원에 대한 추가분담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 예비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 5개 자치구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동구 1793만원에서 북구 8645만원 등에 불과하다.

이날 남구, 광산구는 현 30만원을 25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동구, 서구, 북구는 분담률 조정(시 25%→25%, 구 20%→17%, 교육청 55%→58%)안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두 가지 안 모두 '결국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5개 자치구는 추후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조정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5개구 통합 의견이 접수되면 재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저출산 등으로 매년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입학준비금을 낮추는 게 아닌 높이는 안을 논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해당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서 최소한 인상분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정부, 추석 연휴 앞두고 코로나 의료 대응체계 점검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증도에 따라 코로나19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추석 연휴에는 성묘나 국내의 여행 등 이동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오후 지음미 질병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추석 감염병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발열 증상으로 주말·야간·공휴일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을 분산하기 위해 공공병원, 민간병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설치·운영한다.

또 과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된 경향이 있는 병원 등을 일원형 협력병원으로 지정한다. 이는 입원이 필요한 중증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자신이 있는 지역의 병원에서 빨리 진료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이 늘도록 유도하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자체 단체장이 반장인 '비상'으로 관리 '상황반'을 운영해 응급의료 상황을 관리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한다.

질병청은 연휴 중 치료제 처방·조제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명단을 질병청 '감염병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주에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하는 데 이어 추석 기간에도 10만명명 이상의 지역 물량을 유지할 방침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올해 여름 유행의 정점이 지나 환자가 줄고 있다. /연합뉴스

## 추석 귀성 16일 오전

### 귀경 18일 오후에 집중

국도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3~18일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예측조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 이동 인구는 총 3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대책기간이 7일이었던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이동 인구는 9.4% 줄었으나, 일평균 이동은 5.7% 늘었다. 이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평균 차량 대수는 작년보다 6.6% 늘어난 59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16일 오전(19.0% 선호)에,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날인 18일 오후(22.9% 선호)에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가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풍수·사주

###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간풍수 비법 교육
- 분묘, 미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목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kwangju.co.kr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2차)

당사는 2024년 8월 30일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주식회사 동아이업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우평3길 6  
청산인 김경숙

### 해산 및 채권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4년 09월 03일 사원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1일  
유한회사 다모이저원  
광주광역시 북구 남남대로 635, 2층 (동림동)  
청산인 정일도

### 법원판결(양도, 양수) 공고

(채권자 의의 공고)

한편채권자명 대표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 김씨 등)의 사할을 주식회사 한결(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의 대표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에게 양도한 채권(채권)의 양도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은 양도받은 채권(채권)에 대해 기간 내의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모 -

1. 법원판결(양도, 양수)에 관한 채권: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에게 양도한 채권(채권)의 양도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은 양도받은 채권(채권)에 대해 기간 내의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원판결(양도, 양수)에 관한 채권: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에게 양도한 채권(채권)의 양도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은 양도받은 채권(채권)에 대해 기간 내의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예정일: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에게 양도한 채권(채권)의 양도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인 방인환(이하 같이 보유하고 있는 소생사실)은 양도받은 채권(채권)에 대해 기간 내의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1일  
양도인 회사 "김" 한결엔지니어링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8  
대표이사 방인환  
양수인 회사 "유" 주식회사 한결엔지니어링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8  
대표이사 방인환

### 판결 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고단93 경범죄처벌법위반
- 피고인 : 오형택

위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9월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영기

kwangju.co.kr

##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된  
062.227-9600

###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주택)  
카페 및 부속건물 20py (텃밭 100py, 트럭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24억(융자 6억 5천)**  
**인수가 17억 5천**

**010-3646-8700**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들과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

북구	· 통 266-1920	· 문 266-1960
	· 통 525-3761	· 신 222-8171
	· 통 571-7658	· 오 266-7801
	· 통 433-1503	· 우 433-1503
동구	· 통 673-6836	· 통 222-9054
	· 통 225-8001	· 통 222-9054
	· 통 222-8171	
남구	· 통 673-6836	· 북 651-1833
	· 통 673-6836	· 송 675-6605
	· 통 671-7276	
서구	· 통 382-5788	· 상 372-2352
	· 통 369-1625	· 문 376-7153
	· 통 376-6511	· 통 603-0311
	· 통 369-1625	
광산구	· 통 952-1687	· 월 959-1920
	· 통 973-2900	· 하 955-0451
	· 통 944-0444	